

제 283호 · 2014년 11월 19일

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길광수 감리위원

# KMI

## 국제물류위클리

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

### | CONTENTS |

#### 물류정책·사업동향

1. 인도와 중국, 아시아 해상물류 중심경쟁 본격화
2. 캐나다 알베르니항, 환적허브 조성 프로젝트 타당성 분석 완료
3. 에스토니아 Sillamäe터미널, 러시아 대외공급사슬에서 역할 증대 기대
4. 중국 푸젠성 도심 물류시장의 확대로 물류단지 역할 증대

#### 물류시장동향

1. CMA CGM·OPDR·Seago Line사, 모로코 - 북유럽·러시아 간 냉동화물 운송재개
2. Ningbo항, Zhenhai(전하이) 보세물류센터 건립 발표

#### 공지사항

1. 제10회(2014년 2차) 해외물류사업 설명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 물류정책 · 사업동향

## □ 인도와 중국, 아시아 해상물류 중심경쟁 본격화

- 인도와 중국은 아시아 해상물류의 중심이 되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임
  - 2020년까지 32개 아시아 국가 전체 기반시설 투자액이 8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매년 약 7,76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 특히 아시아개발은행에 따르면, 아시아를 가로지르는 대규모 항만 및 경제, 문화 연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가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음
- 아시아를 가로지르는 대형 사업 중 하나로 중국은 태국, 스리랑카, 몰디브, 파키스탄 등 인도양을 거쳐 중동, 유럽까지 이르는 해상 교역로인 해상실크로드(Maritime Silk Road)를 추진 중에 있음
  - 이미 중국 시진핑 주석은 지난 9월 스리랑카와 몰디브 등을 방문,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는 등 해당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의 일환으로 중국은 스리랑카 콜롬보항을 해상실크로드의 허브항만으로 만들기 위해 50억 달러 규모의 항만개발 사업을 시작함
  - 또한 인도가 인도양 국가 간 물류, 정치, 역사적 연대를 강화하고자 하는 마우삼 사업(Project Mausam) 계획을 발표한 이후, 중국은 400억 달러의 자금을 해상실크로드 사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함
  - 시진핑 주석은 해당 사업이 다양한 국가들 간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그에 따라 중국은 인접국가와의 협력을 위한 전문가 양성소를 20,000개 이상 만들 계획임
- 중국의 해상실크로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자극받은 인도는 자체적으로 마우삼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마우삼 사업은 인도양 국가들 간의 해양, 경제, 역사 및 문화적 연대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총리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
  - 그러나, 인도가 마우삼 사업을 중국 해상실크로드의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면, 이는 단순히 인도양 국가간 역사적 관계의 부활을 넘어서서 중국과 같이 해당 지역의 강력한 정치적, 경제적 연대를 만드는 공동 항만 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 이 사업의 사전 작업으로 인도는 1억 달러 규모의 신용융자를 베트남에게 제안하는 동시에 양국 해군 간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자료 : www.porttechnology.org, 2014.09.16., 2014.11.10., 2014.11.17.

전형모 전문연구원 (☎ 02-2105-2817, hmjeon@kmi.re.kr)



## □ 캐나다 알베르니항, 환적허브 조성 프로젝트 타당성 분석 완료

- 캐나다 포트 알베르니 항만공사(Port Alberni Port Authority, PAPA)는 알베르니 항에 밴쿠버 Fraser 강 유역을 포함하는 캐나다 서해안과 미국 북서부 지역의 컨테이너 환적 허브를 개발하기로 함
  - 신규 개발 사업은 알베르니 협만(Alberni Inlet) 그린필드 지역에 약 1.7억 캐나다달러를 투자하여 50만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연간 350만 TEU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바지선을 통한 연안 운송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임

### < 프로젝트의 컨셉 >



### < 자동 터미널 처리 설비 >



자료 : Port Alberni Port Authority

- 포트 알베르니 항만공사의 Zoran Knezevic 대표는 “신규 개발사업에 대해 다양한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포트 알베르니 항만공사는 신규 개발사업의 잠재적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다음 단계에 대한 논의를 원한다”고 밝힘
- 실질적인 개발은 6년에서 8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완료시 중소형 선박을 비롯하여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등 다양한 선박들의 접안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중소형 선박들의 연안운송 활성화를 통해 내륙지역 도로운송 부담률을 줄이고, 이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절감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음

자료 : www.portalberniportauthority.ca, 2014.8.26.

손보라 연구원 (☎ 02-2105-2914, bora62@kmi.re.kr)

## □ 에스토니아 Sillamäe터미널, 러시아 대외공급사슬에서 역할 증대 기대

- 에스토니아 Sillamäe항의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이 러시아 컨테이너 해상운송에서 에스토니아의 역할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됨
  - 에스토니아 Sillamäe항 북동쪽에 건설된 신규 터미널은 2014년 10월에 완공되었으며 테스트를 거친 후 2015년 봄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예정임
  - 신규 터미널은 15.5m의 수심을 확보하여 덴마크 해협을 경유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모든 규모의 선박 수용이 가능함
  - 2015년에는 Sillamäe항에 기차역과 철도화차 하역시설이 건설되며 두 시설 모두 Sillamäe항과 러시아 운송망을 연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Sillamäe항은 러시아 컨테이너 환적 수요를 처리하는데 최적의 장소임
  - Sillamäe항은 탈린항에 비해 러시아에 더 인접해있으며 EU와 러시아 국경인 나르바(Narva)-이반로고드(Ivangorod) 지점으로부터 25km 떨어져있음
  - Sillamäe항 인근에 위치한 탈린항<sup>1)</sup>은 러시아 환적 수요를 처리해 왔으며 중기적으로 역할을 확대할 계획임
- Sillamäe항은 러시아 시장을 전략적 타겟으로 정했는데 최근 러시아와 서방 연합국(EU 연합,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및 오스트레일리아) 간의 양자 무역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Sillamäe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증대시킬 전략적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컨테이너처리 시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트 3국은 러시아 컨테이너 공급사슬에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의 항만은 러시아 북서부에 위치한 칼루가의 제조업지구에 대해 상트페테르부르크보다 가까운 거리에 있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고 그로 인해 원재료의 공급 및 완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운송할 수 있음
- 2015년 Sillamäe항에 철도인입선이 구축되면 Sillamäe항은 중장기적으로 러시아의 컨테이너 해상운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임
  - 현재 발틱 3국과 러시아는 철도로 연결되어 있으며, 러시아와 서방 연합간의 무역제재에도 불구하고 2014년 1~9월 에스토니아 최대 철도회사인 EVR Cargo사의 대 러시아 철도 수송량은 전년 동기대비 7% 증가한 61.6만 톤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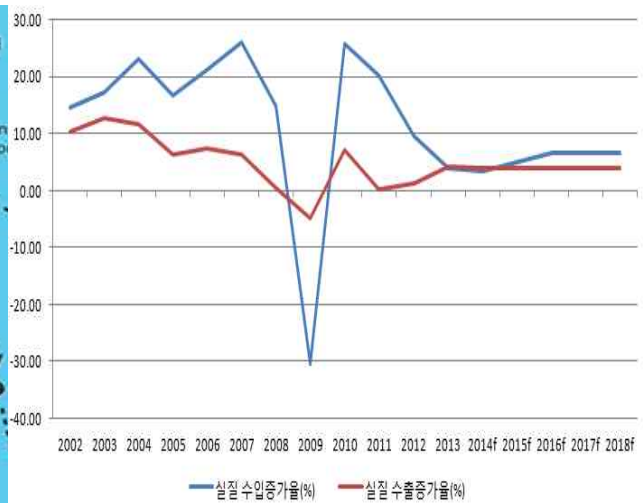
1) 에스토니아의 최대항임.

## &lt;Sillamäe 항의 신규 터미널의 위치 및 무역경로&gt;



자료 : www.silport.ee

## &lt;에스토니아 대러 수출입 증가추이(전년대비)&gt;



자료 : www.businessmonitor.com

- 러시아의 교역 증대에 따른 컨테이너 환적 수요 증가는 에스토니아의 대 러시아 공급사슬 역할을 증대시키는 또 다른 요인임
  - 2014~2018년 기간 중 러시아의 실제 무역 성장률은 연평균 5.6%를 기록할 전망이다
  - 또한 단기적으로 무역제재가 풀릴 때까지 러시아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제품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Sillamäe항은 러시아로 들어가는 매력적인 진입경로가 될 것으로 기대됨

자료 : www.businessmonitor.com, 2014.11.12.

양규석 연구원 (☎ 02-2105-2928, yks8065@kmi.re.kr)

## □ 중국 푸젠성 도심 물류시장의 확대로 물류단지 역할 증대

- 중국 남동부 푸젠성(福建省)은 인구의 증가로 소비가 확대되면서 쇼핑몰, 대형 마트, 편의점, 온라인 상점과 같은 판매망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음
  - 푸젠성 도심 거주자들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2009년 19,577위안에서 2013년 30,816위안으로 연평균 12% 증가했음
  - 또한 푸젠성 내 소비재 판매액은 2009년 4,481억 위안에서 2013년 8,275억 위안으로 연평균 16.6%가 증가했음
  - 푸젠성의 온라인 쇼핑시장도 빠르게 확대되었으며 소형 화물의 운송이 급증하면서 도심 내 D2D 물류수요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 푸젠성은 화물 매칭(freight matching) 문제를 해결하고 3자 물류 서비스의 개발을 위해 고속물류단지(Fujian High Speed Logistics Park)에서 전자정보 교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음
  - 고속물류단지는 푸젠성에 있는 도시들에게 상품을 운송하기 위한 창고의 역할과 더불어 제품의 분류, 가공, 포장과 같은 부가가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창고기능에서 벗어나 입주 기업들이 상품을 전시하고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
  - 입주기업인 Gome Electrical Appliances은 정기적으로 재고 제품들을 물류단지 내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물류비와 임대비용, 장비설치 및 운영비를 절감하고 제품 판매단가를 낮출 수 있었음
  - 고속물류단지는 오프라인 쇼핑은 물론 온라인 쇼핑을 위해서 전자상거래 사이트도 개설했으며 오프라인 상점을 위한 전자쿠폰과 e티켓도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
  - 푸젠성 고속물류단지 관리사의 Wu Shihui 사장은 온라인 쇼핑이 점차 인기를 얻으면서 전자상거래 운영사들이 고속물류단지로 입주하고 있으며 택배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음
- 현재까지 Deppon Logistics, Shentong Express(STO), Airfex International Express를 포함한 10개 이상의 유명 물류기업들이 물류단지에 입주해 있으며, 이들 기업이 처리하고 있는 물량은 한 해에 1천만 개 이상임
  - 단지 내 배송 업체들은 구매자들에게 일괄쇼핑(One Stop Shopping)이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면서 상품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고속물류단지는 창고와 유통센터로서의 기능은 물론, 향후에도 늘어날 소비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품들을 혼재하고 유통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임

자료 : www.hktdc.com, 2014.10.27.

이홍원 연구원 (☎ 02-2105-2897, hongwon@kmi.re.kr)



## 물류시장동향

## □ CMA CGM·OPDR·Seago Line사, 모로코 - 북유럽·러시아 간 냉동화물 운송재개

- 모로코의 과일 추수가 시작되는 시즌부터 CMA CGM, OPDR, Seago Line사가 모로코와 북유럽 및 러시아 간 냉동컨테이너 운송을 재개할 예정임
  - 로테르담 항은 이 해송경로의 주요 기항지로, 운송 재개 시 모로코 산 오렌지 류의 대유럽 수출 중심지가 될 것임
- 이와 동시에 프랑스와 덴마크에서 Dunkrus, Baltic Sea 서비스도 재개하고 있으며 OPDR의 모로코 지점은 Argan Express(AGAX)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 중임
- 회사별 주요 운송 루트는 다음과 같음
  - CMA CGM Dunkrus: 탕헤르 - 카사블랑카 - 아가디르 - 포트머스 - 뉘케르크 - 로테르담 - 루앙 - 탕헤르
  - OPDR AGAX: 아가디르 - 카디스 - 킬버리 - 로테르담 - 아가디르
  - Seago Line Baltic Sea: 카사블랑카 - 아가디르 - 상트페테르부르크 - 로테르담 - 카사블랑카
- 이 운송 라인은 유럽과 러시아의 오렌지 류 수입이 급증하면서 재개되는 것임

자료 : www.portnews.ru 2014.11.13

이하림 연구원 (☎ 02-2105-2954, harimy@kmi.re.kr)

## □ Ningbo항, Zhenhai(전하이) 보세물류센터 건립 발표

- Ningbo항의 전하이 보세물류센터는 행정부 및 재정경제부를 포함한 중국 정부 부처의 공식 승인을 획득함
  - 센터는 Ningbo항과 전하이 경제구역에 위치하며, 214,000m<sup>3</sup>의 저장 탱크 설비를 보유함
  - 또한 중국에서 처음으로 현지 통관 절차(LCP: Local Clearance Procedure)를 실행하고 있는 유일한 보세물류센터가 됨
- 본 센터는 국제 무역, 가공 무역 및 보세화물 무역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며, 센터의 설립은 Ningbo항의 자유무역지역 개발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짐

자료 : www.transportintelligence.com, 2014.11.13

김주혜 연구원 (☎ 02-2105-4985, joohye915@kmi.re.kr)

**[공지] 제10회(2014년 2차) 해외물류사업 설명회**

- 일시 : 2014년 11월 26일(수), 13:30 ~ 17:50
- 장소 :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사파이어룸(2층)
- 주최 : 해양수산부
- 주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프로그램

시간	주요 내용	
13:30~14:00	등록 및 자료 배포	
	개회식	
14:00~14:05	개회사	김성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14:05~14:10	환영사	전기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1세션	
14:10~14:50	사할린 포로나스크(Poronaysk)항 오일허브 개발프로젝트	데니스 반시코비치 Seaport Poronaysk Ltd 부사장
14:50~15:10	질의 · 응답	
15:10~15:35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스키항 개발 프로젝트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연구실장
15:35~15:50	질의 · 응답	
15:50~16:05	네트워킹	
	2세션	
16:05~16:35	나훗트카 리바디아 석탄 전용항만 개발 프로젝트	임재인 팍스글로벌(주) 부사장
16:35~16:55	질의 · 응답	
16:55~17:20	캐나다 포트 알베르니 컨테이너 환적 허브 터미널 개발 프로젝트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연구실장
17:20~17:35	질의 · 응답	
17:35~17:50	종합정리 및 폐회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연구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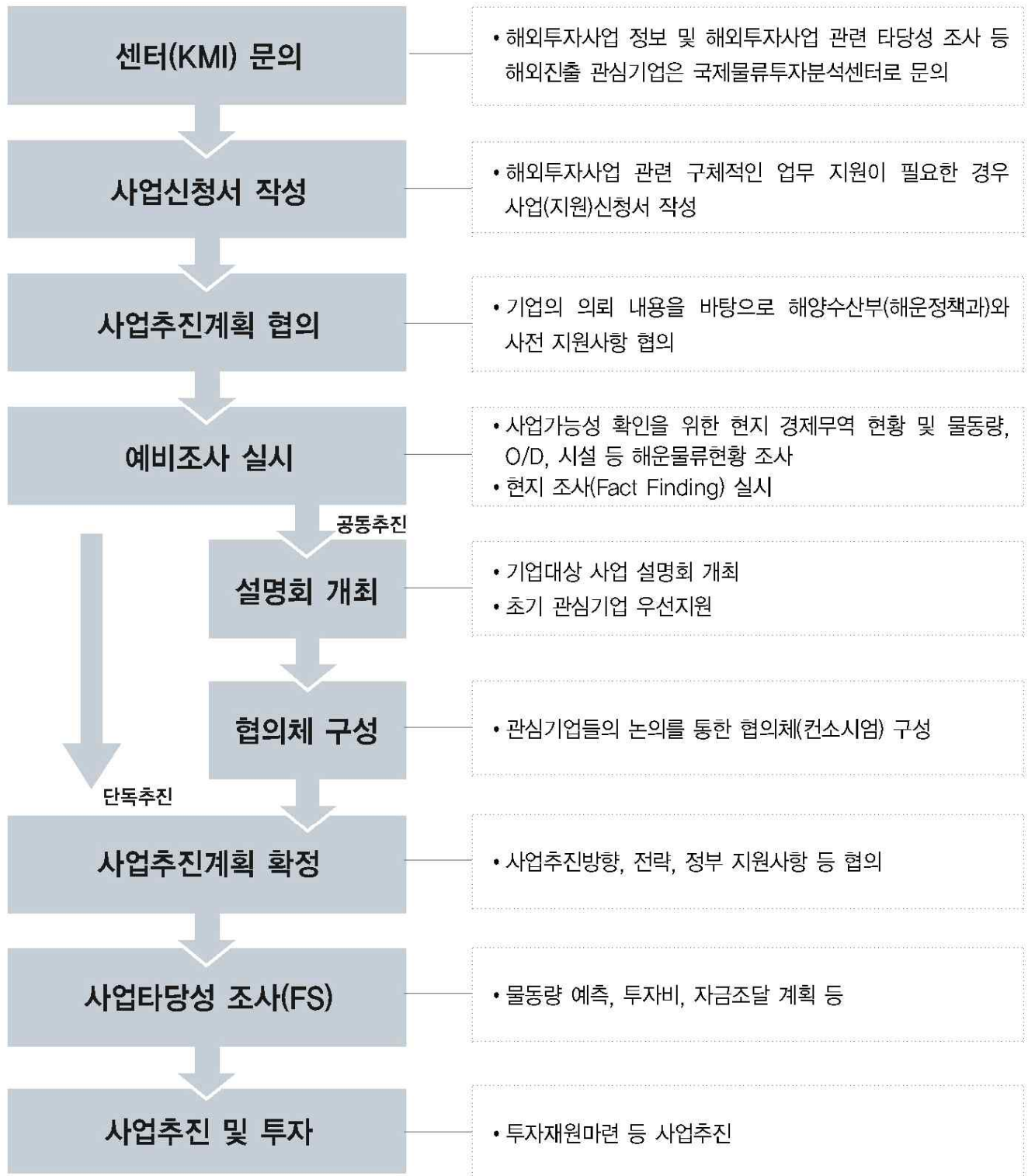
\* 동시통역제공

- 참가신청 : 2014년 11월 25일(화) 18:00까지 이메일 (yks8065@kmi.re.kr) 접수
- 참가문의 : 양규석 연구원(☎ 02-2105-2928, yks8065@kmi.re.kr)  
손보라 연구원(☎ 02-2105-2914, bora62@kmi.re.kr)

※ 본 사업 설명회는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선착순 참가접수를 받을 예정이므로, 관심 기업은 위의 이메일로 반드시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